

“국가예산·특자도 등 현안 해결 총력 경주”

김관영 도지사, 삭감된 예산 복원 위해 설득활동 배가... 실국별 활동 독려
도의회와 소통 강화·전북특별법 특례 실행 사전준비·수능 방역지원도

김관영 도지사는 9일 간부회의에서 실국장에게 전북 관련 국가예산 회복, 특별자치도법 개정, 남원의전원법 통과 등을 위해 정부 부처, 국회 소통에 총력을 경주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도가 삭감된 국가예산의 회복을 위해 부처와 기재부 등에 설명 활동을 강화해서 예산 증액의 결실을 거두자며 실국별 활동을 독려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와 더불어 이후 실행도 중요하다는 전북형 특례가 마련되면 관련 지침과 조례 마련, 용역, 기본구상 등 행정절차를 미리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준



비를 철저히 하고, 상임위원의 원들께도 일정 질문·5분발언 등 의정발언 추진상황을 미리 설명하는 등 도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지역소멸위기 대응과 관련해 지역활력타운과 지역특성살리기 공모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추후에도 부처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시군의 지방소멸

대응기금 집행률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군과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18일 수능 당일에는 도내 수험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최상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역대책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수능 시험 종료 후 예상되는 인파밀집 상황에도 선제적으로 안전조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행정에도 빅데이터와 AI를 결합해 혁신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도가 채용한 빅데이터 전문가를 활용해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역량강화에 힘쓰라고 덧붙였다. /김재훈기자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172인, 찬성 173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시스 제공)

“전북도 산하기관 인권경영 이해도 부족”

김이재 도의원, 인권담당관 소관 행감서 “도입한지 5년 흘렀으나 인지도 40.7% 불과
도 차원서도 여러 대책 마련중이나 현재 인식 정도로는 요원... 단순 교육 넘은 대책 필요”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더불어민주당, 전주) 위원장이 9일 제405회 정례회 인권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 산하기관의 인권경영 이행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 2018년 8월 국가인권위의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에 따라 같은 해 11월 전북도는 산하기관과 MOU를 맺어 인권경영을 본격 도입했다. 그리고 최근 인권담당관은 지난 5년간의 인권경영 이행 실태조사 용역을 진행했고, 9월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보고자료를 보면 먼저 직원 대상 설



문조사 결과 인권경영의 도입배경에 관한 인지도 정도를 묻는 질문 40.7%만이 ‘높다(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했고, ‘인권 관련 이슈가 발생했을 때 제직 기관의 처리과정을 신뢰하는냐’는 질문에 61.5%만이 ‘신뢰한다’고 응답하는 등 전반적인 인지도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인권경영에 관한 성과평가 결과도 과반에 가까운 6개 기관이 성과

지표 미달 기관(총 50점 만점 중 30점 이하)으로 평가받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인권경영이 처음 도입된 이후 5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산하기관의 인식은 여전히 도입 초창기와 다를 게 없는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직장 내 인권 이슈가 꾸준히 발생하며 도 차원에서도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현재의 인식 정도로는 요원할 일일 것”이라며, “인권경영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 교육을 넘어 본질적인 이해도와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재훈기자

“인권지킴이단 정책제안 기능 재활성화해야”

박정규 도의원, “20건 중 대부분이 민원성... 세미나 정례화”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정규(더불어민주당, 임실) 의원이 9일 제405회 정례회 인권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인권지킴이단의 정책제안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도 인권담당관실은 인권에 대한 인식개선과 각종 차별행위의 제보 등을 위한 ‘도민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고 있다. 인적구성은 인권강사, 사회복지사, 인권지킴이 등 150명이 참



여한다. 올해 운영 성과를 보면 정책제안, 침해제보 등 24건(정책제안 20, 침해제보 2)이다. 박정규 의원에 따르면 인권담당관이 올해 인권지킴이단 활동 성과로 제출한 내용 중 정책제안 사항을 보면

△인권지킴이단 역량강화 교육을 저녁에 해줄 것 △시군 영성화의 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해줄 것 △인권지킴이단 모임 시 식비 또는 장소를 지원해줄 것 등이다. 이에 대해 박정규 의원은 “현재 인권지킴이단의 정책 제안은 단순 민원성에 머물고 있다며, “정책제안이야말로 인권지킴이단에게 필요한 핵심적 기능이나 사실상 그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제안과 관련된 세미나를 정례화하거나 교육을 병행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정책제안 기능을 다시 활성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훈기자

“농업 지키기 위한 정책 마련 앞장”

민주 안호영 의원, 한농연 국감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재선)이 2023년 국정감사에서 농정 전반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날카로운 질의와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2023년 한농연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한국농기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이하 이회구)는 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23년 정기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안호영 국회의원 등 총 여섯 명이 ‘2023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해 시상했다. 안호영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농업인 소득인정액 구축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공익직불제 예산 5조원 확보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경영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재해에 대한 피해보전제도 개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제언해 농업계와 농업전문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특히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보전제도 개선을 위해 △농작물 재해복구 단가들



실거래가 수준으로 상향 △재해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손실보전 △현재 70개로 제한된 농업재해 보험대상 작물 확대 △농업재해보험 정부 보험료 지원을 현재 50%에서 70%로 상향 △보험자금을 상향해 추후 현실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치유산업의 현황과 과제’라는 정책보고서를 발간해 국내 치유산업 현황을 점검하고, 해외 치유산업 사례를 조사, 치유산업 발전과 진흥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안호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농가소득지표가 최악을 기록했지만 정부가 물가인정을 관계로 외국산 농축수산물만 무차별적으로 수입해 농가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었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국가책임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 점이 농업계의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안 의원은 “농업계를 대표해 귀한 상을 주신 것은 농업·농촌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라는 취지인 만큼, 민생대책을 마련하고 농업·농촌·농민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이미션 남원시의회 부의장
책 읽는 의원 대상 수상

남원시의회 이미션 부의장이 사단법인 국민독서문화진흥회가 ‘책 읽는 나라’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한 2023년 책 읽는 대한민국 시상식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상을 수상했다. 이미션 부의장은 폭넓은 독서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시민들과 나누며 소통하여 남원시의회에서 주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입법 활동과 민생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정책 제안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수상소감에서 이미션 부의장은 “앞으로도 힘 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독서문화 확산과 지식 공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부안군의회

“군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선진의회”

 김광수 의장	 이현기 부의장	 김두례 의회운영위원장	 김원진 자치행정위원장	 박태수 산업건설위원장
 이용님 의원	 박병래 의원	 김형대 의원	 이강세 의원	 이한수 의원

포털사이트에서

부안군의회

을 검색하세요

https://council.buan.go.kr